



21일 오후 광주서구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한 시민이 TV 화면에 송출되는 정치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압도적 정권교체” vs “李 대안 없나”... 엇갈리는 광주민심

“내란정당은 절대 안돼. 12월 그날 밤 난리가 나는 줄 알고 심장이 벌렁벌렁 했 당게.”

22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만난 60대 택시기사는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몹시리리 치면서 열변을 토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 있는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 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다가올 6·3 대선에서 절대 표를 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의 민심은 압도적 정권 교체와 심판을 위해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반감 역시 적지 않았다.

◆이재명 대세론에 “정권 교체해야”
광주 도심 곳곳에서 만난 광주 시민 대다수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이재명 대세론에 “압도적 지지율로 정권 교체해야”

계엄령 비호 국민의힘 반대하지만 李 반감도 팽배

광주 광산구 송정역시장 한 방앗간에서 만난 김모(75·여)씨는 “코로나19때 겨우 버텼다가 이제 다시 살만해지니 계엄으로 외장장 무너졌다”며 “국민의힘은 믿을 수 없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방앗간 TV로 민주당 경선 뉴스를 지켜보던 단골 손님도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한테 경쟁이 안 된다. 정권을 교체하고 내란정당을 심판하려면 이재명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곽모(69)씨는 “사법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죽일라고 무리하게 수사를 해도 뭐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며 “성남시장 때 떨어붙이는 면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역경제 살리고 일처리 하나는 잘했다”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

출근길 서구 상무지구 길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7)씨도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성남시장 때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 무너진 경제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후보는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했다.

◆계엄 비호 국힘 반대에도 ‘어대명’ 반감 “대안 없어 답답”

비상계엄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절대 반대하면서도 ‘어대명’ 분위기에 반감을 드러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광산구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정모(53)씨는 “윤석열 생각만 해도 잠을 잘 수 없다. 계엄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다시는 정권을 잡아서 안 된다”면서도 “이재명이 좋은 게 아니라 대안이 없어 민주당을 뽑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출장을 마치고 송정역에 도착한

직장인 박모(32)씨는 “정권 교체는 당연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아닌 것 같다”며 “그동안 정치판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독단적이고 논란이 없는, 새로운 인물을 뽑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라고 무조건 표를 몰아주는 지역 정치 풍토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발 기류는 젊은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구 전남대후문 카페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이모(25·여)씨는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무조건 민주당을 믿어줬다”며 “민주당 찍었다고 호남이 발전한 게 아니라, 일리가 생겼나, 뭐하나 바뀐 게 없다. 정권은 교체해야 하고 그렇다고 민주당은 아닌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전남대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5)씨는 “일당독재는 무너져야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조삼모사식 정치와 공약이 우리 세대에 너무 많은 짚을 주는 것 같다”며 “어대명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나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도일 기자

수묵비엔날레, 참여작가 20개국 82명 확정

국내 49명, 해외 33명 등 총 82명, 300여 점 전시
해외 작가 13→40% 글로벌화... 신진·거장 한 자리
8월30일 개막... 목포·진도·해남에 총 6개 전시관

‘문명의 이웃들 - 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이란 주제로 오는 8월 30일부터 두 달여간 펼쳐질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수놓은 국내·외 참여 작가 명단이 확정·발표됐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 작가 명단과 전시 방향 등을 소개했다.

참여 작가는 ‘수묵으로 그리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을 목표로 20개국 82명이 참여한다. 국내 49명(작가 17명, 생존 32명)과 해외 생존작가 33명이 참가한다.

해외에서는 국제적 작가인 중국의 란한, 일본의 팀랩(teamLab)을 비롯해 중국 8명, 일본 5명, 네덜란드·호주·폴란드 각 2명, 대만·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폴·인도·페루·홍콩·핀란드·인도네시아·이란 각 1명씩이다.

올해 수묵비엔날레는 직전 2023년 비엔날레 당시 13%이던 해외작가 비중을 40%로 대폭 늘려 수묵화의 글로벌화를 꾀했다.

목포와 진도에서만 열렸던 직전 비엔날레와 달리 이번엔 수묵의 뿌리가 전남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남 고산 운산도박물관으로도 넓혀 3월 전시 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관은 해남 고산운산도박물관과 땅끝 순례문화관, 진도 소전미술관과 남도전통미술관, 목포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모두 6곳에 설치

됐다.

또 하나의 주제 아래 전시관별 콘셉트를 설정해 해남은 최고의 수묵 거장전과 붓의 향연을, 진도는 수묵의 확장·여백의 미와 실현성, 채움과 비움·수묵추상 및 채색, 목포는 수묵 예술의 동시대 가치와 새로운 자연·움직이는 수묵 등으로 잡았다.

수묵을 전통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설치·영상·디지털 매체와 접목한 실험적 시도를 확대한 점도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이자 달라진 점이다.

여기에 예년과 달리 진도·해남에서 프리뷰와 프리오프닝을 운영하는 등 개막행사의 다양화로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관람객 유치, 도내·외 기관과의 협약(MOU), 인센티브 지원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꼽힌다.

김형수 사무국장은 “수묵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전시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작가들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대 작가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윤재갑 예술감독은 “수묵은 더 이상 과거의 회화 장르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번 전시는 수묵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해석·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전남이 지닌 수묵의 역사성과 함께 동시대 예술 흐름을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승원 기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4일 전남서 개막... 4일간 열전

25일 목포종합경기장서 ‘OK! Now 전남, 활기 UP ~’ 개최식

전라남도도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의 최대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목포를 비롯한 전남 20개 시군에서 24일부터 4일간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해 축구, 농구, 육상, 수영, 배드민턴 등 41개 종목 총 57개 경기장에서 치른다. 수중 핀수영 종목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사천경기로 먼저 진행돼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은 25일 오후 5시 40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OK! Now 전남, 활기 UP 생활체육!’을 주제로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등으로 전남의 비전과 주력 산업을 선보인다. 박지현, 린, 트리플에스, 황윤성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축하공연도 마련돼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염선호 기자

곡성군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일 - 25^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